

[2021학년도 경기도 미술 초수합격]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수기를 작성합니다. 저는 미술교육과를 졸업했고, 4학년 졸업예정자로 첫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1차 성적: 61.67 (1차 합격 컷: 61.67)

- 2차 성적: 91.41 (최종 컷: 148.46)

(실기: 26.85/30 수업실연: 18.02/20 수업나눔:8.94/10 개별면접 37.6/40)

총: 153.08 (+4.62)

1차 마지막 컷으로 80등에서 2차에서 28등으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1차 준비] 인터넷 강의 수강

- 1-2월: 3학년 2학기에 타 강사 기본이론 강의를 들었고, 이 때는 복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위상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1-2월 공부는 오래 앉아있기 연습이라고 생각하여, 하루에 10시간을 해보자! 라는 다짐으로 공부하였고, 강의를 듣고 나면, A4용지에 제 나름대로의 복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이해한 뒤에, 적어보면 이해가 더 잘되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교육학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 3-4월: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1-2월에 제작한 복습 노트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파트별 백지 쓰기 스터디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부터는 공부시간을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측정했습니다! 학기 중이었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공부시간이 조금 더 생겼었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은 꼭했습니다.
- 5-6월: 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의 핵심 내용을, 1-2월 자료와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암기가 되었기 때문에, 꼭 그날 들은 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전공 백지쓰기는 계속 하였습니다. 교육학은 따로 강의를 듣지 않고, 정리해둔 자료만 복습하였습니다! 5-6월엔 학부 생활로 하루 4시간 정도 밖에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7-8월: 문제풀이를 하면서, 목표관리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1-2월 자료를 계속적으로 암기하면서, 모의고사의 목표점수를 설정하고,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모의고사 문제를 A4 용지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며,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였습니다. 교육학은 기본을 암기하며 주 1회 정도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평균 공부시간은 6-7시간이었습니다.
- 9-10월: 기본이론을 계속 회독하면서, 교과서를 보며 공부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보이는 도판들, 내용들에 적어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문제 풀이의 컬러도판에 관련 키워드와 내용을 다 적어보는 연습도 하였습니다. 9-10월에는 매주 객관식 점수 총점을 1점씩, 서술형은 각 문제당 0.1점씩 높여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 방향을 조정하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목표를 도달했고, 무엇이 부족한지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보완하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교육학은 전공 모의고사와 함께 매주 1-2회 정도 답안을 작성해보고, 구조화된 자료를 계속적으로 암기하였습니다. 졸업 전시 등으로 하루 7시간 이상 공부하기 어려웠습니다.
- 11월: 11월에는 기본이론, 1-2월 정리자료, 파이널 자료 등을 계속적으로 회독하면서, 마지막엔 나만의 언어로 굳히기, 이해한대로 그대로 기억하기 등 같은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14시간 정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 스터디

: 1-4월 친구와 함께 형성평가 문제 만들어보기, 동기들과 범위를 정해두고 백지쓰기 스터디 정도로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는 꼭 무언가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공부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을 아끼고, 자기 전 공부를 위해, 새롭게 안내용, 정리하여 기록해둔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저만의 밴드를 만들어 활용하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는 밴드도 만들어서, 서로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여서! 이동 시간, 종이를 보기 싫을 때, 공부해야 할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휴대폰으로 공부했습니다!

▷ 스트레스 관리

: 저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고시 생활 중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공부 계획을 다시 짚습니다. 계획하는 과정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11월을 제외하고는 휴식은 꼭 필수적으로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도 하고, 휴식과 공부의 병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놓고 나면 공부가 더 잘 났습니다.

[2차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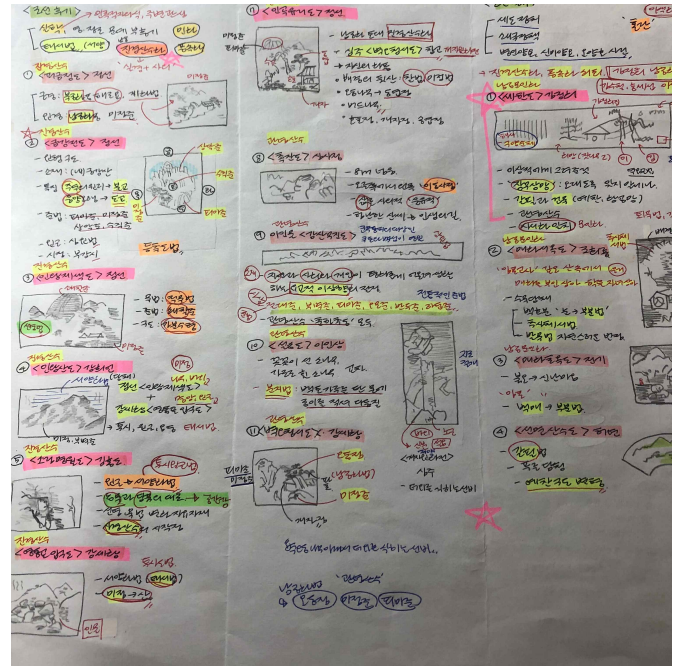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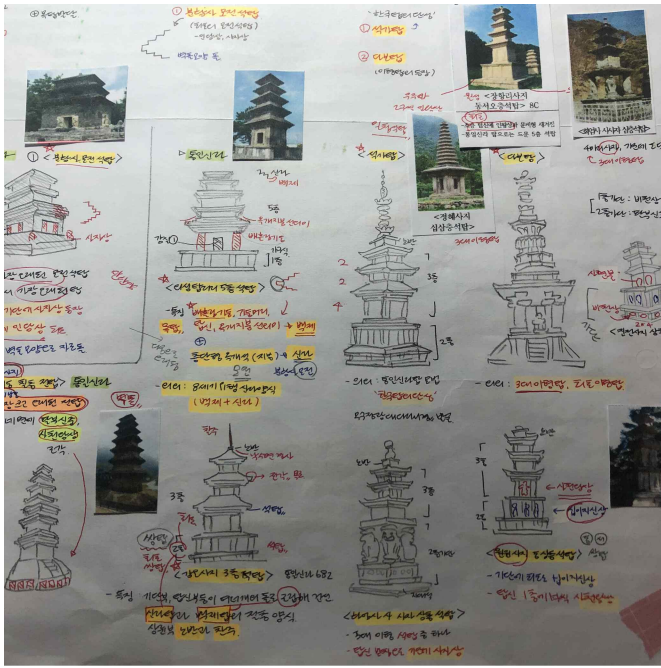
1차가 끝난 뒤에 안 될 거라는 생각에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실기 학원만 다니면서 면접과 실연을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2차를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준 부분이었습니다... 1차 합격 후에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합격 컷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것은 소용없으니, 현재가 중요하단 생각에, 정말 쉬는 틈 없이 준비했습니다!

- **실기:** 실기는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입시 전공은 소묘였지만, 경기도에는 소묘가 선택 과목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수채화와 조소를 선택하였고, 3.15점의 감점으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준비 기간에는 따로 준비 없이, 1차 시험이 끝난 뒤에 실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수채화는 학원을 다녔고, 조소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창시절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배웠습니다!
- **면접:** 1달 만에 모든 내용을 숙지해야 했기 때문에, 저만의 자료를 빠른 시간에 만들고, 이를 그대로 암기하였습니다! 면접을 볼 때,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이 없고, 말을 차분하게 잘 해내어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의 분위기에 15분 시험을 11분 30초 만에 끝내버렸었습니다...ㅠㅠ 구상형 3번을 답변한 뒤에 또 구상형 3번을 답변 드린다고 말한 실수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2.4점이 깎인 것을 보면! **면접은 자신감 있게 답변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 **수업실연, 수업나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지만! **밝고 당당하게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빠트린 것도 있었지만, 시험장에서 말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고 말하다 보니 시험이 끝났었습니다... 수업실연은 틀을 만들어서 최대한 적용하려 하였고, 수업 나눔 또한 만능틀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에겐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머리를 사용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만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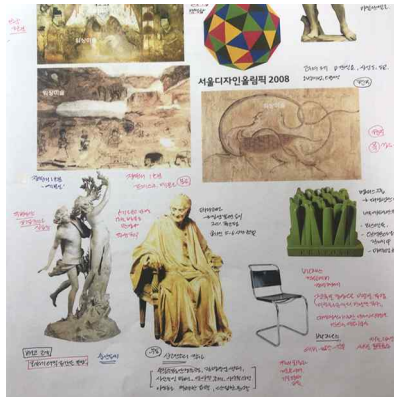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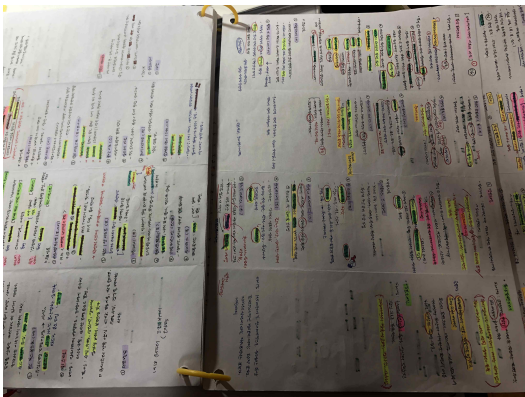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는 위상 선생님의 **합격할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제 공부의 신념으로 두고 공부하였습니다. 사실상 공부에 투자한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제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라는 생각으로 학습에 대한 메타인지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무작정 공부하기 보다는 자신의 학습을 파악하고 개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학습의 효과성, 효율성을 믿고 자신 있게 공부한다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1차 성적을 잘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경기도는 2차 변별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세요!!

▷ 1-2월 자료와, 실기자료가 도움이 될까 싶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그리거나, 쓰면 이해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암기가 되어서 A4용지를 활용하여 복습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 모든 내용은 이렇게 복습 하였습니다!

- 컬러도판에 다시 인출해보기 공부법이 좋았어요! (교과서 4개에 동일하게)

- 1차와 2차 모두 A4용지 4등분 공부를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조소 평소작, 수채화 3시간 30분 시험작

